

#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Study of a Policy Plan for Vitalizing a Family Leisur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 소 영\*

Leisure Policy Research Cent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Yoon, So-Young

---

### <Abstract>

This study is to solve following problems by a family leisure as the problem of a single person in seclusion type, teenager-children being addicted to game, the disconnection of culture inheritance among inter-generation, the elder being isolated from leisure, the increase of the children using a key to go into home alone, the problem of a gender discrimination. This study defines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as "policy that ultimately creates the happiness of family, prevents the family problem and deals with it, through the leisure activities that are suitable to family life cycle". It also considers some other important properties(equality, gender and family life cycle, space) besid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family leisure.

To create the happiness of family,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heads toward the positive function such as unification, creativ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family members. At this point, the object of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is a unit of the family and it focuses on the level of interaction and positive function development between family members, being beyond the concept of family activity. Therefore, the policy that is to vitalize a family leisure must contain the interaction and positive function between the family members.

Hereupon, to vitalize a family leisure, this study leads above-mentioned subjects based on programming, running leisure facility, information system, experts, social awareness, and supporting to the various family. Specially, the process of leading these subjects is connected to the suggestion of the concrete program and then, is to result in supporting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he essential leisure policy.

---

▲주요어(Key Words) : 가족여가(family leisure), 여가정책(leisure policy), 가족문제(family problem), 가족활동(family activity)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이후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늘어난 자유시간동안 가정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과 이를 통한 가족의 기능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2007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2.3%)’를 꼽고 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늘어난 여가시간에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이나 가족관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4년 독일의 폴크스바겐 회사는 노사합의하에 휴일을 하루 더 늘린 이후, 거주자의 대부분이 폴크스바겐 공장 노동자였던 볼프스부르크시의 이혼율이 약 60%이상 증가했다(김정운, 2003).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

\* 주 저 자 : 윤소영 (E-mail : soyoung@kcti.re.kr)

있으나, 이와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은 30~50대에 편중되고 있으며(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0대나 20대의 여가활동은 온라인과 친구 및 또래집단에 집중하고 있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친구나 혼자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가족여가 활성화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청소년 자녀의 게임중독과 부모와의 갈등, 가족원내 세대간의 문화전통의 계승 단절, 노인의 여가소외현상,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열쇠아동(자기보호아동)의 증가, 여가에서의 젠더 불평등문제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족해체 문제나 가족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생활만족과 행복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생활문화 발전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가족여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권내에 다양한 여가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시설물들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여가자원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여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와 가족여가정책의 범위설정을 위해 선행연구 자료와 관련 정책 자료를 분석한다. 가족여가 활동, 자원 및 제약요인, 세대별·성별 여가활동 특성과 가족여가 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가족여가조사 등 2차 자료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족여가정책의 방향과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II. 가족여가와 가족여가정책

### 1. 가족여가에 대한 논의

가족여가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논의점은 그 구조와 기능, 활동내용, 가족역할과 책임과의 관계, 가족생활주기, 그리고 공간 측면 등이다. 즉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족여가인가?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은 무엇인가?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족여가를 통해 만족하는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활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족여가는 가정안과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가족여가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 1) 공유 활동을 통한 가족만족도 증진 추구

가족여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우선시 되는 것은 가족여가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가족여가의 개념을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경우(이기영 등, 1995; 정국현, 2006; 홍성화, 2003; 홍성희, 1996; Shaw, 1997; Shaw & Dawson, 2001), 가족여가의 개념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가족여가는 자유 시간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사용하는 것(Shaw, 1997)을 말하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동거중인 가족구성원 모두의 참여(홍성화, 2003),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홍성희, 1996),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정국현, 2006),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지영숙·이태진, 2001)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한편, 최석호(2004)는 ‘가족이 여가활동의 단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가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여가는 파멸을 재촉하는 독이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여가는 가족간의 연대와 친밀성을 더 높여주는 약이다’(최석호, 2004). 즉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해체될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가족여가의 개념과 기능을 논하기 보다 가정 자체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적 여가생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오히려 가정의 불안정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정의 안정성과 가족원의 결합력을 발달시키고(양영아, 1996); Orthner & Mancini, 1990),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정이 되며(지영숙, 1999),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장이 되는(Kelly, 1983) 등,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가족원에게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지영숙, 1999)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여가는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Aron과 Aron(1986)은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와의 장시간에 걸친 활동공유가 자아를 확장하지 못하고 시간만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면 남는 것은 지겨움뿐 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부들은 확장적인 연합활동(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척석호, 2004에서 재인용).

일찍이 Orthner(1975)는 부부의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활동(individual activities), 병행활동(parallel activities), 공유활동(joint activities)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작용 측면에서 공유활동을 통한 가족여가활동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Orthner(1975)의 연구를 발전시킨 Holman과 Jacquart(1988) 역시 부부의 여가활동이 함께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개인활동(individual activities), 최소 공유활동(low joint activities), 중간 공유활동(moderate joint activities), 최대 공유활동(high joint activities)으로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의 공유활동이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의사소통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역할의 상호변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 공원 나들이, 레포츠활동, 캠핑 등이 속한다.

결국, 가족여가 개념은 가족단위로 가족원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기능과 결합력을 증가시킬 때 그 존재로서 의미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를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가족여가를 통해 가족원은 통합적 기능, 심리적 안정 기능, 교육적 기능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짓는다.

## 2) 가족역할 및 책임감과 구별되는 자발적 참여

가족여가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는 가족여가가 가족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한 역할 결정적 또는 강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다(Kelly, 1983)는 우려이다. 즉 의무감이 함축되어 있는 역할 결정적인 활동들은 여가로 경험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가 아닌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참여에 의무감을 느끼고(Parnicka, 1995), 가족 자유시간 활동이 어머니에게는 역할의무로서 여겨져 ‘준여가(semi-leisure)’의 경험(Freysinger, 1994; Homa, 1989; Shaw, 1997)이 될 수 있다(윤소영·윤지영, 2003).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여가(가족여가)와 젠더”이다. 일관되게,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가정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제약요소들을 가지며(Shaw, 1994),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second shift’(Hochschild, 1997)를 경험하게 되어 여가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다(Shaw, 1985).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간 여가시간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오며(Bttman & Wajcman, 1999; Mattingly & Bianchi, 2003; Shaw, 1985), 자유시간 동안의 여가경험에 있어서도 어린자녀의 존재나 결혼 상태, 부모역할 등으로 인한 시간압박감으로 인해 남성과 달리 중단(fragmentation)과 오염(contamination)을 경험하게 된다(Bttman & Wajcman, 1999;

Mattingly & Bianchi, 2003).

가족여가에서 젠더의 문제는 성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간의 기대되는 성역할의 차이로 남성과 여성이 여가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지며, 그로인해 가족여가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더욱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에 앞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더 억압을 느끼고 즐거운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 Gillman, 1997; 김혜영, 2004에서 재인용).

가족의 기능성을 높이고 결속을 증진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욕구나 선택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 때, 가족 단위의 여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가족여가에서 공동의 욕구와 개인적 욕구의 충돌, 공유활동과 개인활동의 허용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가족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원 개인의 여가욕구가 희생될 경우 가족여가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가족여가는 가족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숙제 등(2005)은 ‘취미생활과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과 자유시간 동안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가족여가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평등성과 강제성·구속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가족여가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가족단위로 함께 하는 참여하는 여가활동이면서, 가족원의 참여가 강제적이거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참여가 강조된다. 가족여가는 가족원의 역할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평등하지 못하며,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지양하기 때문이다.

##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가족 발달의 시간적 경과를 보여주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도 여가활동 참여는 달라진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의 요구 및 자원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는 여가활동의 유형, 참여도, 시간 사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복합체로 간주되며, 여가활동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참여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elly, 1983).

이에 대해 라포포트 부부(Rapoport & Rapoport, 1975)는 여가와 가족생애주기간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여가활동의 형태나 여가활동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자녀양육의무, 젠더 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는 그들 각각이 미혼일 때에 하던 여가활동과 유사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지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들의 여가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녀들과 관계가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활동은 힘들어지며, 특히 어머니의 자유시간은

자녀들의 여가 뒷바라지 때문에 더욱 줄어들게 된다. 중년에 이르게 되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부는 자녀 없이 여가와 휴일을 보내게 된다. 노년의 전형적인 여가활동은 볼링이나 볼룸 댄스 등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여가활동은 그들이 젊었을 때 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가족여가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 태도나 참여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 상황과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4) 거리 및 공용성 기준에 따른 가족여가공간

가족단위로 함께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여가활동이 등장하면서 여가활동 공간도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구축되는 비물리적 사이버 공간(카페, 블로그, 싸이월드 등)이나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여가시설(짬짬방 등) 등이 그것이다.

가족여가활동공간은 거리(distance)에 따라 생활권과 광역권으로 구분되는데(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4), 생활권 여가공간은 거주공간과 근접한 거리에 이용이 용이하고 당일 여가형 공간으로 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을 말하며, 생활체육공간, 도시근린공원, 문화공간, 생활복지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광역권 여가공간은 생활권 여가공간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주거지와 이격되어 입지하며 숙박이 동반되는 여가공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 관광지, 유원시설 및 휴양공간, 전시관람공간, 스포츠 체육공간 등으로 분류된다.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그 공간적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2. 가족여가정책의 범위

탈근대화 과정속에서 사회정책의 방향은 이미 발생한 문제에 급급하게 대처하거나 단지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자 또는 중앙정부 중심, 정부주도 방식, 물량중심의 양적 확대 등의 전략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요구 중심, 정부·민간의 협력 방식,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 추구 등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더 이상 '일' 영역에 집중하지 않고 '일-여가-가정생활'의 세 영역의 균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정책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일, 여가,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각

영역별 정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족단위의 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창조하는 정책으로서 가족여가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즉 국민의 행복창조를 지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여가정책의 지향성과 가족의 성장과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의 지향성을 그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으며, 삶의 문제가 생계문제에서 삶의 내용의 문제로 변화됨에 따라 여가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 가치추현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기본조건이 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있어 여가가 권리이자 기본욕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가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여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고 여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가향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의 육성,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달, 그리고 총체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국민의 수준 높은 여가생활은 선진국형 복지사회 구현의 중요한 지표이자 성과로 평가되기에, 국가의 여가정책은 국민의 행복창조를 지향하게 된다.

여가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여가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그들의 여가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가 참여자인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행정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여가시설 및 서비스 등의 요소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과정, 그리고 여가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족여가의 긍정적 기능 강화는 가족정책의 방향 속에서 모색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의 역량강화, 균형적 가정생활 추구, 가정생활의 통합적 실현을 정책목표로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 공동체문화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15조)되어야 하며,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통하여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꾀하도록'(28조)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가족여가활동을 매개로 가족구성원의 친밀감 향상과 유대 강화를 통해서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여가활동에 근거한 건전한 가족문화보급은 전국에 걸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여가사업은 그 성격상 문화사업내 포함되어 체험, 캠프, 전시·관람·축제·각종 행사, 통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이에 본 연구는 가족정책과 여가정책의 개념에 근거하여, 가족여가정책에 대해 “가족단위의 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창조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한다. 여기서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는 가족의 행복 창조이며, 이를 위해 가족구성원의 결집력을 발달시키는 통합성,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창의성, 심리적 안정성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향한다.

### III. 가족여가의 실태

#### 1. 가족단위 여가활동 내용

국민여가활동조사(2006년, 2007년, 2008년) 분석 결과(<표 1> 참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TV시청, 외식, 산책, 종교활동, 목욕/사우나, 영화보기 등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Orthner(1975)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른 분류 기준에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족여가활동은 공유활동보다는 병행활동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에 따라서는 집이나 생활권내 상업시설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다.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TV시청의 참여율은 점차 줄어들며, 영화보기 등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0세 이상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 2> 참조)도 위의 내용과 같다. 즉 청소년 자녀들이 현재 부모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 외식, 쇼핑, 산책, 목욕, 영화보기, 등산,

<표 1>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연도별 추이

순위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활동	참여율(%)	활동	참여율(%)	활동	참여율(%)
1	TV시청	34.4	TV시청	23.3	TV시청	17.2
2	외식	9.0	외식	10.3	영화보기	7.9
3	산책	6.1	종교활동	6.5	외식	7.0
4	종교활동	5.6	산책	5.9	목욕/사우나/찜질방	5.4
5	목욕/사우나	5.0	목욕/사우나	5.8	종교활동	5.0

주 :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조사된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은 개별 응답자들이 여가활동을 누구와 동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로, 가족 중 어느 누구와도 함께한 활동이라면 모두 포함된 경우.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7,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표 2>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 연도별 추이

활동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참여율(%)	활동	참여율(%)	활동	참여율(%)	
TV시청	29.5	TV시청	28.9	TV시청	24.1	
외식	17.3	외식	23.4	영화보기	19.7	
쇼핑	13.9	영화보기	17.4	배드민턴	13.9	
산책	11.6	등산	16.9	외식	13.1	
목욕	11.6	목욕	14.9	산책	13.1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7,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표 3> 부모와 함께하길 희망하는 청소년 여가활동 : 연도별 추이

활동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참여율(%)	활동	참여율(%)	활동	참여율(%)	
국내여행	23.1	영화	17.0	국내여행	31.8	
영화	19.4	국내여행	15.8	영화	12.8	
쇼핑	9.7	등산	14.1	운동	12.3	
해외여행	8.8	해외여행	12.9	놀이공원	8.2	
찜질방	7.9	외식	9.5	쇼핑	8.2	
외식	7.9					
수영	7.9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7,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배드민턴 등이 있다. 2007년 조사의 등산이나 2008년 조사의 배드민턴과 같은 적극적 활동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제시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과 비슷한 활동이 대부분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표 3> 참조). 즉 국내여행, 영화, 쇼핑, 해외여행, 수영, 등산, 운동, 놀이공원방문 등 대부분 생활권 공간이나 광역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포함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집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실내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활동도 상호작용이 적으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한다는 병행적 특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서 강조될 점은 함께한다는 측면보다도 긍정적 가능성이 강화되고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관계적 속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점차 TV 시청 활동이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과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길 원하는 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차별화된다는 사실에서 가족여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 2. 가족여가의 제약 요인

가족의 여가제약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정한 여가제약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여가활동을 기피하거나 중단하게 만든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경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에 의해 주관적으로 상이하게 지각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가제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부(2002)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여가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적극적인 가족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평일의 경우 ‘시간의 부족(48.6%)’, ‘경제적인 부담(3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경제적 부담(32.5%)’, ‘시간의 부족(20.3%)’,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18.2%)’ 등이었다.

여성가족부(2005)의 “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표 4> 참조), 가족과 여가시간을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부담(29.2%)’, ‘일이 바빠서(22.4%)’,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1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려움’, ‘자녀교육, 수발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라는 비중이 높았다. 즉,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과 자녀 및 노인 등의 돌봄으로 인한 이유로 자신의 피곤이나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여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용과 가사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이와 달리 직장생활로 인한 곤란함, 자신의 피곤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 지향적이면서도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가족여가의 제약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의 활동종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저녁시간 여가활용을 보면, 남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사분담 및 자녀 숙제 및 공부지도이다. 저녁시간 활용 중 가사를 푼 사람은 여성은 29.3%인 반면, 남성은 2.9%로 10배가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자녀 숙제 및 공부지도도 여성의 경우 4.7%, 남성의 경우 0.7%로 6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족여가를 향유함에 젠더적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데, 여성 특히 아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구성원에게는 저녁시간과 가족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휴식을 의미하지만, 가정주부에게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연장된 노동시간과 노동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가족구성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청소년의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TV시청 및 비디오 보기를 제외한 다른 활동들에서 ‘거의 하지 않음’의 응답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처럼 10대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여기시간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공동의 시간을

<표 4> 성별에 따른 평일 저녁시간 활용

(단위: %)

남 성		여 성	
TV시청	56.7	TV시청	43.5
휴 식	10.8	가 사	29.3
가족과 대화	5.0	휴 식	5.8
회사업무	4.9	자녀지도	4.7
운 동	4.8	가족과 대화	3.9
컴퓨터게임	4.8	운 동	3.5
기 타	13.0	기 타	9.3

자료 :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보고서.

<표 5> 10대 청소년의 가족여가 제약요인

(단위: %)

구 분	10대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41.3
일이 너무 바빠서	15.4
경제적 부담	14.4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6.7
가족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5.4
몸이 피곤해서	3.0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2.7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0.7
수발해야 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등이 있어서	0.3

자료 :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보고서.

<표 6> 연령별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비율

(단위: %)

구 분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활동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10대	14.1	13.2	14.4	19.0	30.8	8.4
20대	10.7	13.3	12.0	19.2	35.0	9.8
30대	9.4	16.3	10.0	21.5	32.6	10.2
40대	8.1	17.3	8.2	23.7	31.4	11.4
50대	6.4	17.9	6.6	26.4	29.3	13.4
60대	3.9	18.0	4.1	33.0	25.1	16.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내기 힘들어서'가 41.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적인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이 가족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제약요인으로는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와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부담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 3. 연령별 · 성별 여가활동의 차이

가족여가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라고 할 때,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은 성별 · 세대별 다양성을 포함한다. 즉 가족구성원은 각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등 성별 · 세대별로 역할을 부여받으며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 이와같이 다른 세대와 다른 성을 가지고 공동의 여가활동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여가활동에 대한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가족원을 구성하는 성별 · 세대별 여가활동의 관심과 활동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령별

연령별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보면(<표 6> 참조)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미 · 오락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휴식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온라인상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높는데, 또래집단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적이 강하다. 20대에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즐기며 마찬가지로 개인적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30대부터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도 친구나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과 즐기는 여가활동 비율이 높아진다. 40대는 사회활동의 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친구 및 직장동료들과 각종 모임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한다. 50대에는 신체적 ·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여가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 및 친지방문의 참여율이 높다. 60대가 되면 여가활동이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며 사적이고 익숙한 사람들과의 여가활동이 증가한다.

한편 사람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significant others)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동반자도 달라진다(<표 7> 참조). 10-20대의 경우 혼자서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30-50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다시 혼자서 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즉 독립심과 정체감이 확립되는 10-20대에는 가족의

&lt;표 7&gt; 연령별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구 분	혼 자	가족/친척	친 구	동호회/직장동료
10대	44.1	21.1	34.5	0.3
20대	36.9	15.8	43.5	3.7
30대	31.6	37.1	24.6	6.7
40대	30.4	38.4	25.0	6.3
50대	34.2	32.3	27.1	6.4
60대	38.4	29.4	29.5	2.7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lt;표 8&gt; 성별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비율

(단위: %)

구 분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스포츠활동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남 성	8.7	15.1	12.7	21.9	31.9	9.6
여 성	9.9	16.3	6.9	23.6	31.0	12.4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울타리를 벗어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한편, 30~50대의 경우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가활동 역시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60대 이상이 되면 사회에서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여 가족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 여가활동의 참여목적 중에서 가족 친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10~20대에는 0.2%였다가 30~40대에 0.7%, 50대에 0.4%로 증가하고 다시 60대에서 0.1%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족여가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및 휴식, 오락 및 즐거움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모는 가족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기능과 스트레스 해소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활동 유형,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윤소영 · 차경옥, 2004).

## 2) 성별

남녀 모두 전체적인 여가경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예술관람 참여활동, 관광활동, 기타 사회활동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남성은 스포츠활동이나 취미·오락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중년 남녀의 여가활동 유형을 비교한 정민영(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는 남녀 모두 텔레비전 시청이 각각 55.74%와 43.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성은 스포츠활동(11.48%), 신문구독 및 독서(8.2%), 가사 돌봄(6.56%), 오락 및 놀이(4.9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사 돌봄(31.76%), 스포츠활동과 쇼핑이 각각 5.41%로 나타났다. 휴일 역시 남녀 모두 텔레비전 시청(31.15%, 32.43%)이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남성은 친구와의 만남과 가사 돌봄이 각각 14.75%, 스포츠활동과 낚시가 각각 9.84%, 종교활동 6.56% 순인 반면, 여성은 가사 돌봄(21.62%), 종교활동(21.26%), 친구와의 만남(10.14%)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 기혼 여성은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사교활동, 자기 개발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순으로 여가를 보낸다(김외숙·이기춘, 1992). 이는 남녀 간의 여가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문숙재 등, 2005). 특히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내 성별 관계가 실제로 개인 및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가족여가의 성격 및 양상을 분석하고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가족여가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은둔형 외톨이 문제, 청소년 자녀의 게임중독과 부모와의 갈등, 가족원내 세대간의 문화전통의 계승 단절, 노인의 여가소외현상,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열쇠아동의 증가, 여가에서의 젠더 불평등문제 등의 문제의 해결을 가족여가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서 찾고자 한다. 즉 국민들이 가족생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참여가 기본적인 전제임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정책과 여가정책의 개념에 근거하여, 가족여가정책에 대해 “가족단위의 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창조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여가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휴식형 여가활동이 대부분이며, 부모나 자녀세대가 분리되거나, 자녀교육의 이유나 다른 가족원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여가의 본질은 단순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확대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공유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더욱이 가족여가는 여가의 본질적 특성인 자발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세대별 또는 성별에 따른 평등성을 전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태도나 참여도가 성별이나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이에 가족생활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

결국, 가족여가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행복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의 결집력을 발달시키는 통합성, 자기 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창의성, 심리적 안정성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향한다. 이때 가족여가의 정책 대상은 가족단위이며,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혈연가정 이외에 1인가정, 홀부모가정, 조손가정, 국제결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도 모두 포함된다. 이때 가족여가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으로 개념화되는데, 반드시 가족이 함께한다는 개념보다는 가족간의 상호작용 정도나 긍정적인 기능 발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가족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에는 이러한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긍정적인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공간 운영 시스템, 정보시스템, 전문가, 사회적 인식, 다양한 가정예의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족여가 실태에 대한 요구도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과 여가정책의 방향속에서 가족여가정책의 위치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여가정책의 큰 방향성속에서 실제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의를 제시한다.

## 2.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 1)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 ①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기획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주로 가정안이나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역권 여가활동에 대한 희망율이 높다고 볼때, 가족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단계는 주말을 이용한 캠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생활주기단계별로 주말이나 놀토를 활용해서 가족여가

캠프를 개최하여, 부모와 자녀세대가 전통놀이나 보드게임 등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래와 학교에서 주로 하던 놀이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을 전수하면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가 플러스 평등’ 캠프(젠더 불평등 해소와 가족증진의 목적을 위한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가족간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모든 가족원의 의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개방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합리적인 정보탐색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정책적으로 이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의 탐색과정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가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가족단위로 여가활동을 탐색하거나 실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일회성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중지되는 경우, 가족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형 가족여가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가족문화봉사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가족은 여가시간동안 문화를 통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은 대상, 목적을 뚜렷이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공동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관련 단체나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문화프로그램, 독서, 스포츠활동, 놀이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획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② 가족단위 동호회활동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일정시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로 댄스를 배웠을 때 이 가족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관심과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동호회 활동은 민간 여가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과 교육 훈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과 기술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는 지자체의 주민자체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

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공 생활권 여가시설의 동호회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권 여가 공간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기술적 훈련 제공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여가활동이 주말이나 공휴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고 볼 때, 위의 공공 생활권 여가공간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공생활권 여가공간은 여가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두어 이러한 가족단위 동호회 활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 ③ 가족의 시간계약 지원 활성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중에서 가족단위로 여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크게 나타난다. 여성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단위 여가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혼자, 혹은 친구들과 즐기는 개인적인 여가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평일의 경우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여가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이 바빠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을 비롯하여,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이 크게 손꼽히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가족간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 이외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부족에 대한 제약이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도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에게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가족이 함께 여가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여가에서는 젠더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맞벌이부부를 비롯하여 취업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모의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부모자녀관계 역시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자녀들은 학교 방과 후 부모들의 빈자리로 인해 열쇠아동이 되거나, 게임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여가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서나, 부모와 함께 여가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여가소외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직까지 부모에 의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여가교육을 비롯하여 여가를 지원해주고 경험하도록 격려해줌으로써 시간이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노동으로 자녀들의 여가시간과 함께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다. 여가소외를 겪는 자녀들에게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효과만큼이나 여가기술 습득과 올바른 여가선용의 권

장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시켜주며, 또한 자신의 어린시절 여가활동이 평생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가족 및 자녀들에게까지 여가활동종류와 질, 여가경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 중 방과후 학교는 취업여성을 비롯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취학전 자녀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방과 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곳이 없고, 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을 전전하기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맞벌이부부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보육프로그램을 비롯한 특기적성형태의 여가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대부분이거나 특기적성 형태의 기초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이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여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때 생애초기에 받는 여가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그들의 시간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가교육의 일환으로 재편될 필요가 높다. 미국의 경우 장기적인 생애학습 교육의 일환으로 생애경력을 개발하도록 하거나 창의력 교육에 집중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호주의 경우 보다 분명한 목적(비만치료와 활동적 여가보급)에서 '1일 1시간씩 밖에서 시간보내기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한 클럽 활동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가정으로까지 전파되어 가족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 2) 생활권 여가공간 운영 시스템 개선

2007년 여가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여가시설은 문화, 체육, 복지, 교육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총 4,929개소가 있으나, 253개의 각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평균 20여개의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활권 여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여가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 즉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의 여가시설 최소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생활권 여가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생활권 여가시설의 확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군지역에서 그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여가활성을 위한 정책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국민의 생활권 여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여가관련 시설의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에서 여가시설이나 공간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유희시설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가족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생활권 여가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가족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생활권내 공공시설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자녀의 놀토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 단위로 개발하게 되면 개별 가정의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단위로 구성된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조사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예를들어 지역 한마음 공동체 축제 개최 등)이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이 존재한다. 이 법률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련 시설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생활권내 공공여가시설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지역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법률안을 개선하거나 증보하여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3) 맞춤형 정보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생활권 및 광역권의 여가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양과 내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까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즉 지자체 따라 다양한 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인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정보전달과정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족여가활동에 적합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관련 TV프로그램이나 개인적인 정보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TV에서 제공되는 가족여가 관련 정보는 맛집 등 상업적 여가관련 정보나 중복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사회에서 가족생활주기나 가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가족여가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족생활주기를 결정짓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청소년자녀 또는 초등학교 자녀 등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쉽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여가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DCMS에서 주관하는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Break-out”(http://www.culture.gov.uk/breakout/)이라는 온라인 정보관이 개설되어 있다.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라이브러리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로서, 계절별 활동, 스포츠 활동, 창의활동, 문화활동, 옥외활동 등 5가지 분류로 활동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앞서 밝힌 가족단위 동호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교류나 정보공유가 일시적이고 사적인 친목모임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여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의 체계도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산재된 정보가운데 우수한 정보나 커뮤니티 활동을 선정하여 홍보하며, 그러한 정보를 하나의 포털사이트에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4) 가족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여가전문가 지원

영국의 경우 1973년 제정된 콤펙보고서에 근거해서 ‘여가관리사’라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레저센터에 배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레저센터에 배치되어 각 연령별 수준별로 여가활동에 맞는 상담과 설계를 도와주며 직접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영국은 개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국은 British Activity Holiday Association(BAHA)를 결성하여 레저센터에서 가족단위로 휴일동안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주는데, 이 협회의 지도부의 대부분이 여가관리사라는 전문가 집단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여가 활동이 가정이나 생활권 중심에서 소극적이고 병렬적인 활동을 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일키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서 밝힌대로 가족여가캠프나 생활권내 여가시설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여가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문화 봉사단 활동이나 생활권 단위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전문인력의 인력풀을 관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

계하는 역할도 이러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가족단위의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클럽활동을 하기 위해 생활권 공공여가시설을 개방하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권내 공공여가 시설에 여가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정보나 교육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5)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가족여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중심적인 사고에서 일이외의 생활영역(대표적으로 가족영역과 여가영역)과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도 가족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기업내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에서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나 직장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소영·김현, 2008). 따라서 가족여가문화와 직장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가족구성원간 유대와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이 집중적으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연속적 휴가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Happy Monday제도나 휴일대체제, 또는 영국의 Bank Holiday와 같이 1년간 일정한 양의 휴일을 보장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편, 가족여가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그 요구도와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본질적인 측면은 자녀의 유무나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특히 자녀의 존재유무와 양육문제는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에 직접 연관되는 요인으로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녀양육 문제를 지역사회, 학교, 가정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녀양육 문제는 가정내에서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문제이며, 학교는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부부의 양육문제나 여가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제기된다.

##### 6) 다양한 가정에 대한 여가지원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 특히 홀부모 가정, 조손가정, 국제결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심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여가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가권 인정 측면

으로 수용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제결혼가정 또는 결혼이주여성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의 교육사업이나 출산도우미 등 문화·정서지원, 그리고 자주집단 육성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거나 또는 자신의 고국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적었다. 더욱이 이들을 문화적 소외계층으로만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의 수혜자로만 인식하고 여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였다.

최근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일반 가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 가정의 문화 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합창단, 문화클럽을 형성하거나 다문화가정의 멘토-멘트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홀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가정처럼 부모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밖에서 보내고 어린 자녀들끼리 가정이나 생활권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놀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외숙·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유형.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0, 61~74.
- 김정운(2003). **휴테크 성공학**. 명진출판사.
- 김혜영(2004). 가족여가와 젠더. **가족과 문화**, 16(2), 127-166.
-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신정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6 여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08). **국민여가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선언과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43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8.
- 양영아(1996). **중산층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요구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06).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 여성부(2002). **전전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여가활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보고서.
- 윤소영·김현(2008). 직장영역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성과, 그리고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41-152.
- 윤소영·윤지영(2003). 가족여가의 활동유형 및 본질에 대한

- 연구. *여가학연구*, 1(2), 11~30.
- 윤소영 · 차경옥(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97~107.
- 이기영 · 김외숙 · 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정국현(2006). 가족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가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촉진 및 세대차이, 세대갈등 그리고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73-392.
- 정민영(2001). 중년남녀의 여가활동 유형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21, 227-240
- 조희금 · 송혜림 · 공인숙 · 이승미 · 이완정(2008). *가정생활복지론*. 신정출판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보고서*.
- 지영숙(1999).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83-94
- 지영숙 · 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최석호(2004). 가족과 여가. *여가학연구*, 1(3), 45-5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정책대상으로서의 여가의 영역 및 추진체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 그리고 정책*. 대왕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7,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한국문화정책연구원(2004). 여가시설 최소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 홍성희(2003).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57-71.
-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Aron, A. & Aron, E. N.(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Hemisphere.
- Bittman, M. & Wajcman, J.(1999).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PRC Discussion Paper*, .97, 1-39.
- Freysinger, V. J.(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Further evidence of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Hochschild, A. R.(1997). *The Time Bind :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Y: Metropolitan Books.
- Holman, T. B., & Jacquot. M.(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Horna, J. L.(1989). The leisure component of the parent ro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3), 228-241.
- Kelly(1983). *Leisure Identity and Interaction*. George Allen & Unwin.
- Mattingly, M. J. &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 81(3), 1001-1030.
-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 Orthner, D. K. & Mancini, J. A.(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5-137.
- Parnicka, U.(1995). Leisure time and active recreation in families with pre-school age children in Biala Podlaska. *World Leisure and Recreation Journal*, 37(3), 42~54.
- Rapoport, Rhona & Rapoport, Robert N.(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beyond palpable mass demand* . Routledge & Kegan Paul
- Shaw, S. M.(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66-282.
- Shaw, S. M.(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1-8.
-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 217-231.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http://www.culture.gov.uk/breakout/>

접수일 : 2009년 02월 04일

심사일 : 2009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04일